

속 기 록

- 회 의 명 : 제349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3. 1. 27.(금) 09:00~10:50
- 장 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나주 본관 3층 회의실
- 출석위원 : 정병국 위원장
 김미라 위원
 김진각 위원
 배은주 위원
 서승미 위원
 이훈경 위원
 장미진 위원
 장인주 위원
 정갑영 위원
 정정숙 위원
 정종열 위원
 홍성태 위원

1. 성 원 보 고

정병국 위원장 : 이번 전체회의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중기사업계획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중기사업계획은 오늘 논의된 결과를 통해 내년 예산의 실령을 기재부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안건의 논의 후 의결해 주시면 이 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서 기재부의 검토가 완료된 후, 그 실령으로 내년도 기관 사업 예산을 구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담당 부서의 보고를 받은 다음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조위원장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효은 노조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정병국 위원장 : 지금 회의실에 8기 위원들이 같이 계십니다. 노조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은 노조위원장 : 예, 안녕하십니까? 예술위원회 제23대 노조위원장 김효은입니다. 근로자 참관제 운영으로 제가 보통 전체회의에 참석합니다만, 오늘은 문체부 산하 노동조합 협의체 워크숍 일정으로 부산에서 부득이 비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위원회 노동조합을 소개하고 노동조합에서 8기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간단히 전할까 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노동조합은 1990년 4월 창립해서 단일 노조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가입대상 직원 중 13명을 제외한 전 정규직 직원이 조합원입니다. 노동조합 23대 집행부는 작년 4월 조합원의 80%의 지지로 선출되었습니다. 8기 위원님들께 보다 자세히 당부드릴 사항은, 곧 노보가 발간 예정으로 있으며, 짧게 위원님들께 당부드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직무수행계획서 또는 위원님들의 활동계획서를 조합원들에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진의 철학과 비전은 조직 구성원에게 나침반과 같습니다. 8기 위원님들께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위원회 조합원들에게 공개해 주신다면 기관 노동조합 조직원 간 열린 소통에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장르나 기능별로 개별사업에 대한 어떤 형식적이고 무분별한 개선보다는 위원회와 사무처가 힘을 합쳐서 현재 독점하다시피한 문체부의 정책 기능을 분권화했으면 합니다. 위원회가 정책기구로서 예술위원회의 위상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자율성이나 독립성 나아가 공공성 확보에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해결하지 못한 문예진흥기금 확충 문제는 정병국 위원장님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태생적 한계로 기금운용계획서를 문체부, 기재부로부터 심의받아야 해서 완전한 자율성 확보는 어렵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과 함께 이슈가 있을 때 이런 기금 확충이라든가 크고 굵직한 사안들에 대해서 문체부, 기재부, 국회에 발 벗고 나서주셔서 진정한 경영진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인건비 확보 없이 사업비만 증액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무처 업무 부담이 상당한 상황이니 이 점을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조합원들의 권리보호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역대 위원님들께서 대체로

수평적인 관계를 지향하시고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는 지양하셨으나 지난 7기 위원님 한 분의 직장 내 괴롭힘, 소위 갑질 논란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블랙리스트의 직간접적인 영향이 아직도 개별 조합원에게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회의 지원방식이나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비판을 받을 때 책임 소재를 위원회 조합원에게 지우지 말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술현장의 파트너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고 싶지 더 이상 자괴감이 들 정도의 사과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8기 위원회의 건승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노조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노조위원장님과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당장에 없으시다면 후에 사안이 있거나 어떤 기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과 대면하고 노조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은 노조위원장 : 예, 기대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결안건이기 때문에 우리 사무처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성원 여부를 확인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직무대행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예, 전체 12인의 위원님들이 전원 참석하셔서 회의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 회 선 언

정병국 위원장 : 예,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3. 전차(前次) 회의결과

정병국 위원장 :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께서는 전차 회의의 주요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예, 전차 위원회 전체회의 결과는 회의자료 4페이지에 있습니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1월 10일 8기 위원님들께서 처음으로 진행해 주신 제348차 전체 임시회의는 의결안건으로 1건이 상정되었고요. 이 안건 상정을 통해 위원장 호선의 건이 의결되었습니다. 보고를 드립니다.

4. 의 결 사 항

정병국 위원장 : 지금부터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안건은 안전번호 제986호 2023-2027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중기사업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류재수 기획조정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안전번호 제986호 중기사업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법 제66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관에 따라서 5년 동안의 중기사업계획을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의자료 15쪽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 업무의 주요 일정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1월에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제출한 자료를 기재부에서 전체 부처별 소요 등을 판단한 후에 지출 한도를 통보합니다. 지출 한도를 통보하는 것은 통상 3월 말에서 4월 초입니다. 4월 초부터 5월 정부안 제출을 위한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후 6월에는 기재부 심사가 4차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8월 말에는 정부 예산안이 확정됩니다. 그 후 국회에 확정된 예산안을 제출합니다. 문체위의 예비 심사와 예결위의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 순으로 예산이 확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중기사업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처음 제출하는 시작 단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워크숍에서 위원님들이 각 사업에 대한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그 내용은 2월 현장 업무보고회 등의 과정을 통해 위원회와 현장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8쪽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2027년 중기 운용 규모입니다. 2023년 사업비가 전체 3,845억, 기금운영비가 232억으로 4,000억이 조금 넘습니다. 나머지 1,000억 정도는 여유자금운용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의 주요 증액 방향, 기초예술 생태계 강화입니다. 어제 말씀하셨지만 ‘예술창작지원의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강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분야별로 지원의 확대가 필요한 부분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문학창작산실 같은 경우에는 문예지발간이나 작가집필실 이용지원 등에 대한 증액 소요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각예술분야의 경우 시각예술창작육성 내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전시 공간이 주요 기반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증액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공연예술 장르에서는 공연예술창작육성 부분에 창작뮤지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연법이 개정되면서 뮤지컬 지원체계의 강화가 되어야 하기에 우리 창작뮤지컬에 대한 창작활성화지원을 독립해서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지원 같은 경우 코로나 사태 당시 일반회계에 인력지원사업이 편성되었다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예진흥기금 예술인력지원의 지원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향유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의 경우에는 워크숍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올해 1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5년 간 1만 원씩 증

액하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12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복권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연동되는 부분입니다. 증액이 되는 만큼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에서 전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의 경우 과거 소외계층 중심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향유 사업을 확대하는 측면으로 증액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에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 기념으로 체육기금을 통해 편성했던 어린이 문학주간이나 문화 활성화 사업의 향유 확대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와 지역교류입니다.

현재 한국문화예술의 위상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과거에는 위원회가 아웃바운드 형태의 국제교류 예산 사업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인바운드로 해외 예술가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교류사업, 레지던스 플랫폼을 확대하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문화예술회관련합회에서 수행하는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과 공연예술 창작산실 사업 간 연계를 하기 위해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의 예산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기록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ISP를 추진해서 의욕적으로 기록원의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역문화재단 등 지역의 아카이브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체계를 만드는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시설 안전과 관련 사항입니다. 아르코 예술극장 설립이 40년이 넘었습니다.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장인주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신문에 기고도 해 주시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기재부와 문체부를 대상으로 요구와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르코미술관의 경우 소장품이 현재 424점이며, 외부에 대여하는 작품은 151점입니다. 그런데 그 작품 중에는 손상이 된 작품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장고 대여와 손상 작품의 수복 관리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입니다. 공공재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의 문화예술 후원을 활성화 하기 위한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조건부 기부금 사업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춘 지출예산을 함께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후원 우수기관과 후원 매개단체 인증 사업이나 지역 메세나협회 등을 더 활성화해서 예술가들에게 돌아오는 총량의 확대를 하기 위한 ‘기업과 예술의 만남 활성화’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균형 발전입니다.

대한민국 공연예술제가 코로나 기간에 많이 위축되어 있다가 지역축제들도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예산이 부족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워크숍에서 말씀하셨던 민간공연장 활성화 대관료 사업 중 지원사업도 이 사업 영역 안에는 포함됩니다.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 사업도 49억 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증액 편성한 내용의 중점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별첨 자료로 보고드렸던 세부 사업별 설명자료에는 10페이지가 넘게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1쪽 이하의 내용은 이에 대한 요약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우리 기획조정부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태 위원 : 10페이지의 ‘기업과 예술의 만남’에서 전례가 뭐가 있나요? 어떤 기업이 기

부금을 많이 냈다든지? 아니면 기업이 기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제혜택 외에 어떤 걸 해 주는 건가요?

장계환 예술확산본부장 : ‘기업과 예술의 만남’은 한국메세나협회를 통해서 재교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자료로 기획조정부장이 말씀드렸던 100페이지 자료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사례를 하나 말씀해 주세요.

장계환 예술확산본부장 : 예, 사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로 여수의 GS칼텍스에서 예울마당의 사례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GS칼텍스가 여수에 기반을 둔 사업장이기도 하면서 여수시와 같이 예울마당을 건립하고 자체 운영을 하면서 지역의 예술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기로 예산이 100억 가까이 투자되고 있으며, 인건비, 공연사업비 등 투자되는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런 사례보다는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위원님들께서 향후 후원지역을 매칭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위원회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장계환 예술확산본부장 : 네, 그렇다면 그 사례보다는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혁신도시 안에 있는 지점에서 매년 위원회에 5,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의 기부금을 내고 있습니다. 위원회 직원들이 방문해서 위원회 취지와 사업설명을 하고 국민은행 측에서 ESG라든지 사회공헌활동의 맥락 속에서 그 취지에 동감하고 저희에게 기부금 약정서를 제출하면 협의 후 후원금액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기에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기부금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광주지역의 소외계층 중 아동 공연을 유치해서 할 것인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남지역의 취약 시설 아동들을 초청해서 공연을 보여주는 것을 기획하였으며, 위원회에서 감사패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바라는 부분들은 일단 ESG 활동이라든지 사회공헌활동 등의 맥락 속에서 자기들 기업의 이미지 등에 대한 취지에 맞게 되면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위원회가 발굴하고 설명할 때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만들어서 설명하고 후원을 유치하는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성태 위원 : 외부에서 크게 기부한 건이 있나요?

장계환 예술확산본부장 : 2019년도에 김윤식 문학평론가 선생님께서 30억을 저희에게 국립한국문학관 건립비로 기탁을 하셨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기업이 아닌 개인이잖아요? 기업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장계환 예술확산본부장 : 작년 같은 경우에는 KB국민은행이 콘서트를 해서 5억 그리고 우리은행이 4억 7,000만 원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4억 그리고 삼호개발에서 2억 4,000만

원, 주식회사 신세계에서 2억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에서 2억 등을 후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에 1억 7,000만 원 정도를 위원회에 기부금 유치 과정에 협력했습니다. 신세계나 아모레퍼시픽은 파주에 있는 하이퍼그래피라 곳의 디자인교육 사업에 조건부 기부금으로 2억씩 유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홍성태 위원 : 그분들한테 어떻게 접근하셨나요?

장계환 예술확산본부장 : 2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니스비엔날레라든지 문학집필 공간 같은 경우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작가에게 객실을 제공하는 등 수요를 파악하면서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위원회가 제공할 수 있는 홍보 라인이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협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시기 대학로 소극장들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것을 중심으로 잡고 지역에 있는 기업체를 리서치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 잠시 말씀드렸던 SGI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도 종로 쪽에 본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연결해서 기업체에서 지역의 연계성 등을 포인트로 담당자에게 접근하거나 ESG라든지 사회공헌활동 팀과의 접근을 통해 위원회가 수시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렇다면 후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4억을 썼다는 건가요? 4억을 지금 14억으로 늘리는 것으로 잡았잖아요? 4억을 쓰고 얼마를 거둬들인 건가요?

장계환 예술확산본부장 : 작년에 저희가 170억.

정병국 위원장 : 4억을 쓰고요? 4억을 어떤 방향으로 집행한 건가요?

장계환 예술확산본부장 : 잠시만요. 세부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게 중요한데 4억을 지난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썼더니 어떤 효과가 나타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강화시키고 강조하기 위해서 증액해서, 4억을 써서 백 몇 십 억을 했으면 몇 배가 오른 거야? 그러면 그만큼 얻어낼 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 해요.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장계환 예술확산본부장 :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억이 제 머릿속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서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4억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쓰시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쓰고 있는지?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위원장님, 중기사업계획에 별도 사업설명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태블릿에 있는 것 중에 96쪽을 잠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위원장 : 96쪽이 없어요.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별첨자료의 96쪽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위원장 : 별첨자료가 있어요?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네, 태블릿에 담겨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담당하셨으면 사업에 대한 사항들은 파악하고 계셔야죠. 그러니까 실무자가 지금 여기에 없어요? 설명해 주세요.

이엘림 기획조정부 대리 : 기획조정부에서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이엘림 대리입니다. 별첨자료 97쪽을 보시면 '기업과 예술의 만남 활성화'라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기부금을 내면 저희가 보조금으로 매칭을 해 준다는 개념이고요. 원칙적으로는 1:1로 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인데 보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1:1보다는 조금 부족하게 매칭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1이 들어가면 기업 기부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97쪽 맨 위쪽의 표를 보면 21년도와 20년, 19년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장계환 예술확산본부장 : 이엘림 대리님,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4억은, 위원회가 메세나 협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총 35억입니다. 그중에서 4억이라는 숫자는 메세나협회가 한국메세나협회만 있는 게 아니라 부산메세나협회, 제주메세나협회, 경남메세나협회 등이 있습니다. 그 메세나협회에 1억씩 저희가 지원을 하는 금액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래서 메세나협회에 1억씩 지원해서 그 1억이라는 돈이 기업의 후원을 끌어내는데 어떤 역할을 해요?

장계환 예술확산본부장 : 메세나협회의 운영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억 정도는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병국 위원장 : 메세나협회는 후원하기로 한 기업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면 협회에서 경비를 써야하는 것 아닌가요? 왜 우리가 그것을 내주죠?

장계환 예술확산본부장 : 메세나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메세나협회의 운영경비 전체를 내 주는 것은 아니고 일부에 대한 지원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일부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단 몇백만 원이 없어서 1년 동안 농사를 짓는다고 할 수 있는 예술인들이 그것을 못 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모금을 하기 위해

서 만들어진 협회의 운영비를 우리가 대준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맞아요, 취지가. 그래서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듯이 예를 들어 기업인들이 후원을 활성화하고 동기부여를 시켜주기 위해서 그들만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해 준다는지. 마중물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누구한테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지 하는 곳에 돈이 쓰여야 하는 거죠. 이게 메세나협회 운영비로 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장계환 예술확산본부장 : 일단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반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설명드린다고 하면 기업비 35억 중에서 저희가 쓰는 것들이 ‘기업과 예술의 만남’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기업체에서 문화예술 쪽의 후원을 하게 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매칭 금액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35억을 집행하고요.

정병국 위원장 : 지금 보면 말은 ‘기업과 예술의 만남’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기업들이 ESG 등의 방편으로 돈을 내면 그것으로 끝나는 형상입니다. 지금까지 운영된 것을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기업인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후위금을 내겠어요? 우리가 이런 사례들을 파악해서 어떻게 하니까 기업이 돈을 내더라. 이런 사례들을 발굴하고 그런 사례를 가지고 다른 기업에 가서 작업을 하고 활동하고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지? 이 비용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장계환 예술확산본부장 :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막연하게 올리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최종적으로 우리 자체적인 사업계획안을 확정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느 기업이 후원을 했을 경우의 사례들을 보시고요. 우리가 조금씩 노력하면 더 기부를 받을 수 있겠다는 것과 이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까지 파악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환 예술확산본부장 :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각 위원 : 제가 하나 여쭙보고 싶은데요. 혹시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계신가요?

장계환 예술확산본부장 : 지금 이 자리에요?

김진각 위원 : 아르크예요.

장계환 예술확산본부장 : 메세나 담당을 말씀하십니까?

김진각 위원 : 예, 전담하는 직원이요. 그러니까 기부 전담 직원이요.

장계환 예술확산본부장 : 있습니다.

김진각 위원 : 몇 분이나 계세요?

장계환 예술확산본부장 : 현재 문화예술후원센터에 10명이 있습니다.

김진각 위원 :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메세나협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기업과
컨택해서 기부를 유치한 사례가 있나요?

장계환 예술확산본부장 : 일단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어제 말씀드렸는데 직접 모금하거나,
어제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 자체 내에서의 사업들은 모금을 저희가 하는 것
보다 후원센터의 운영목적은 매개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후원 활성화에 대한 것을 봄 업시키
는 것에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기존에 운영했던 기금은 지정기탁금이라고 해
서 전국에 있는 축제 내지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지정위탁금 제도를 통해서 신
뢰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금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크게 하
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소소하게 저희가 직접 기부라는 형식을 통해서 내부의 베니스비엔날
레나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모금이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김진각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건 사례를 말씀하시라고 했는데요. 사례는 우
리가 다 들었잖아요, 사전 업무보고를 통해서요. 사례가 있으면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없으
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장계환 예술확산본부장 : 전제가 필요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범사업이라든지 개인 후원금
이라든지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각 위원 : 알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뭐냐 하면, 기왕 아르코에서 기부 활성화라는 목표
를 정하고 간다면 지금의 시스템. 기부 활성화와 관련한 업무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
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메세나협회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요. 한국
메세나협회라는 곳은 기업들이 돈을 내서 운영하는 곳인데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
만 그런 곳의 운영비 같은 것을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 자체가 맥락적으로 말이 안 되
고요. 그러면 이 메세나협회에 의존하지 않고 메세나협회를 통해서, 기업들이 사실 아르코
라는 조직에 대해서 기업이 얼마나 알고 있을지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알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메세나협회를 통하지 않고 아르코에 직접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
게 유도하는 기부가 아르코 내에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수세적으로 기부활성화를 하고 있는데요.
말이 기부활성화지 제가 보기에는 그냥 기계적으로 단순한 업무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직접적으로 메세나협회
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아니면 투 트랙으로 가되 결국 메세나협
회가 주도권을 쥐는 게 아니라 아르코가 주도권을 쥐고 기업들의 유치를 끌어내는 쪽의 포
커스를 맞춘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우리 김진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모든 기업들이 ESG 목표를 기본적으로 달성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효과가 있고 기업 홍보에도 도움이 되고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쓸 돈은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를 잘 몰라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전에 여러 사례들을 발굴해 가지고 홍보를 해 줘야죠. 모든 기업이 ESG 경영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아르코에 기부를 했더니 ESG 목표도 달성하고 그 효과가 발생해서 기업 이미지가 이렇게 제고되었다.”라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하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례 등을 발굴하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추후 논의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기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소위원회가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하고 TF를 만들어야 하면 TF를 만듭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기금 확보잖아요. 돈이 있어야 무엇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 굉장히 수동적이고 늘 받아서 그냥 주는 역할만 했던 게 우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기금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봐요. 기금이 거의 하나도 없잖아요.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배은주 위원 : 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에서 메세나 사업을 한 게 몇 년 정도 된 거죠? 7~8년 정도죠?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지금 메세나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예술지원매칭, 지역특성화, 기업결연 등 여기에는 성과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아르코가 메세나협회를 통해서 메세나 사업을 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효과가 여기에 담겨 있지 않으니깐 여기에서 도출된 효과를 정리해서, 그만큼 기금이 들어가고 있기에 분명 메세나협회에서 효과를 내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보면 예상 효과라고 해서 산출 내역에만 그냥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연간 64억 규모로 늘어났고 투입하면 얼마가 증가될 것이라고만 되어 있으니깐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르코에서 직접적으로 후원받아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제한적인 게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매칭을 하거나 브리지 역할을 통해서 기업과 예술의 만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기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술위원회가 직접적으로 한 것은 초창기였습니다. 제도 기반이 약했을 때요. 그리고 1995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메세나협회 자체도 예술위원회가 추동을 해서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전임 양경학 사무처장직무대행이 실무자로 있을 때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마중물이라는 표현도 썼는데요.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세계 혜택 뿐만 아니라 이미지 제고나 그것이 마케팅 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붐을 조성해 주는 역할을 통해서 그게 예술 쪽 사업에 투여하기만 하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주라든지 경남이라든지 세종이라든지 향후 계속해서 나타날 텐데요. 그동안 예술위원회가 했던 그러한 역할들 그러니까 기부활성화를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사실은 중간 브리지 역할을 하는 것들을 만들어주려고 해서 지금 확산하는 시점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최종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운영되어 자발적으로 해야하는 게 맞습니다만

중간다리 역할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별도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논의를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기부금 관련해서는 말고 다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정중열 위원 : 중기사업계획안을 보시면 무엇을 증액하고 어떤 부분에 증액한다는 게 있는데요. 제가 처음 위원이 되었을 때는 다 증액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거의 다 증액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작년 1월 20일 간담회를 할 때 의결사항에서 중기계획을 보니까 그때는 2026년도에는 9,250억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연평균 증가율을 26.1%로 잡았는데 이번 연도를 보니까 9.9%로 잡아서 현실화가 되기는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사업에 있어서 모두 증액한다고 했는데 과연 모든 것을 다 올려서 다 되면 좋습니다. 다만, 저는 우선순위가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간공연장 사업에 있어서 60억을 증액한다는 것은, 사실 예술인 입장에서는 가장 절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 최대한 이끌어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오늘 이런 논의를 하는 게 실무선의 입장에서 그동안 사업을 한 결과 분야별로 이 정도는 올려야 되겠다는 안을 주신 것인데요. 이 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 사항이나 이런 것을 꼭, 지금 정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올려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우선 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분야가 있거나 관심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보시고 “이것은 현장에서 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더라.”, “이것은 꼭 확보를 해 달라.”, “이것가지고는 안 된다. 더 필요하다.” 이런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안을 만들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 의견이 반영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집행합니다. 이것도 실링을 받을 때 뭘 중점적으로 받을 것인가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거나 의견을 주시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중열 위원 :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공연예술제가 현재보다 더 증액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전국단위의 예술축제고요. 모든 한국의 예술단체들이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87억 원이라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대표예술제 등이 들어가서 그것을 빼게 되면 사실 총액은 상당히 감해진 상태에서 공모가 되고 생각보다 혜택이 많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증액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 2개를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것은 조금 더 정리하셨다가 나중에 반영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미진 위원 : 공연예술제도 말씀하셨지만 공연예술제는 86억이거든요. 그런데 공연예술창작산실은 87억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원금이 제가 보기에 87억인데요. 그것도 문제지만 K-뮤지컬이라고 65억이 따로 독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연예술 중에서 왜 K-뮤지컬에 중점을 두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물론 증액하면 좋겠지만 공연예술창작산실에 대한 증액은 불가피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정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서 중기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지출 한도를 주게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예산에서 99%. 동일하거나 작게 한도를 줍니다. 그 이후에는 위원회가 한도 외로 기재부를 설득하여 편성하게 되는 것이고요. 창작뮤지컬이 들어간 부분은 공연예술창작산실을 증액해달라고 하면 설득이 안 됩니다.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 형태로 만들어서 예산 당국을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원체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해서 이것을 신규 소요로 반영시켜서 전체 공연예술창작산실의 볼륨을 키워서 다시 재분배한다는 체계로 가기 때문에 공연예술부에서도 고민 끝에 창작뮤지컬을 별도로 독립해서 60억을 요구하는 계획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장미진 위원 : 이해는 하겠는데요. 제가 20년 전 자료를 보니까 이런 창작과 관련된 지원이 30% 이상이 되었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300건이 넘는데 예술위원회 본질을 넘어서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서 설득이 어렵더라도 이것은 꼭 기재부에 말씀하셔야 할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미 위원 : 소소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추경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병국 위원장 : 추경은 아직 정부나 국회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는 상황일 때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의견도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서 “이것은 꼭 반영해 달라.”라고 제시하게 됩니다.

서승미 위원 : 그러면 상설 추경인가요?

정병국 위원장 : 상설 추경은 없어요. 그래서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부가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할 때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가 워낙 나빠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또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분야에 집중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분야가 제외될 때도 있고 포함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분야를 특정해서 주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한다고 해서 무조건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승미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 개인적인 궁금함인데요. 품목에 대한 꼬리표가 붙나요? 그러니까 저희끼리 그 품목에서 이쪽 예산을 이쪽으로 가거나 할 수는 없나요? 저희가 올린 예산의 품목에 딱 맞게 집행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설명을 해 주세요.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지출 한도가 정해집니다. 지출 한도가 정해지면 세부 사업 내에서는 조정을 일부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전반적으로 건전재정이 강화되고 있고 민간보조금에 대한 관리 실태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보조금에 대한 증액은 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승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세부 사업 내에서는 일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중에서 줄여야 할 사업들 그러니까 저성과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합의해서 그 사업을 줄이고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승미 위원 : 예컨대 예비비 같은 것은 저희가 없나요?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없습니다.

서승미 위원 : 이유가 있나요? 대부분 예비비가 있을 텐데 위원회는 일반회계와는 다른가요?

이엘립 기획조정부 대리 : 문예진흥기금은 일반회계와 달리 기금이라는 게 여유자금으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예비비 편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역할을 말씀드리면, 국가재정이라고 하면 크게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나뉘지는데요. 문체부가 운영하는 일반회계에는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기금에는 여유자금 운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필요할 때는 기재부의 승인을 얻어서 다시 사업으로 편성할 수는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정부 부처가 그 분야의 정책을 집행하고 사업을 진행 함에 있어 예기치 않은 상황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재해가 일어날 때 쓸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확정된 안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기관은 아닌 것이죠.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서승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경은 할 수 있는데 역시 문체부와 기재부를 다 설득해야 하고 변경의 필요성을 예산 심사와 같이 증명해야지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훈경 위원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창작산실이나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쪽으로 우선순위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향유자와 제작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렇게 따졌을 때 공연예술제 같은 경우 86

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5개 분야, 6개 분야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나누기를 해 보면 분야 당 17억이고 축제 하나에 주는 게 아니라 그 분야에서 열 몇 가지의 축제가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그것을 다 분산해 보면 명색이 대한민국공연예술축제인데 축제 하나 당 5억에서 7억 정도가 배분되고 이것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를 만들어라.” 이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먼저 붙어야 하지 않을까? 같은 맥락으로 창작산실도 87억인데 배분했을 때 나갈 수 있는 금액은 정말 한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고 예술창작자들에게 “좋은 공연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너희들한테 재능을 뽑아내라”라고 강요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하면 이쪽이 저도 먼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 :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문예지 지원할 때 문예지가 매년 바뀌나요? 아니면 계속 동일한 문예지에 대해서 계속 나가는 겁니까?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갑영 위원 : 공모를 통해서요?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예.

정갑영 위원 : 그런데 공모를 통해서 하면 대충 추세가 어떻게 돼요?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제가 알기로 70%는 거의 고정적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러면 혹시 그런 통계를 갖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문예지는 몇 년을 했다. 아니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문예지 전체적으로는 700여 개 정도가 된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실무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는 있습니다.

정갑영 위원 : 왜냐하면 자료를 보니까 지원을 요구하는 데는 많은 것 같은데 지원을 받게 한정되어 있으면 공정성 시비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민원이 있기는 했습니다.

정갑영 위원 : 그 자료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요?

배은주 위원 : 질문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아르코에서 예산을 증액 요청하고 최종적으로 요청이 받아들여진 금액이 얼마죠? 그러니까 2022년에 올려서 2023년에 확정된 예산이 얼마죠?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네, 사업설명자료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 그냥 토탈 금액만 말씀해 주세요. 대략 몇 % 정도 증액이 되었나요?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사업비는 5% 전체 증액이 되었습니다.

배은주 위원 : 사업비에서 5%요?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전재정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문체부 전체 예산이 7조 3,000억에서 6조 대로 7,000억 원 가까이 감액되었습니다. 문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건전재정 기조하에서 그나마 방어를 한 상태입니다. 5%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배은주 위원 : 훌륭하게 방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를 여쭙본 것은 복권기금을 빼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복권기금을 빼고 그런 것이죠?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복권기금을 합쳐서입니다.

배은주 위원 : 빼고는 얼마인가요? 빼고는 많이 줄 것 같거든요. 얼마인가요?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복권기금을 제외하고는 줄어듭니다.

배은주 위원 : 기재부나 국회에 갈 때 위원회 예산 페이지 자체가 모든 걸 담을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페이지가 슬림하게 몇 페이지로 한정돼서 예산 증액 업무를 진행하는 게 굉장히 많이 어려우시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예산이 증액되기까지 선택과 집중을... 정 위원님 말씀대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아까 K-뮤지컬, 그 뮤지컬과 관련된 법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가망성이 있어서 65억으로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요청할 때는 근거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법 개정이 있는 예술 장르를 파고 들어서 거기를 통해서 총 금액을 좀 올리고 자그마한 부분은 조금 변경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예산이 기획재정부에 코드별로 제목이 있어서 저희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지만 작은 항목으로 들어가면 바꿀 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크게 생각해서 그러한 전략적으로 위원회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좋은 의견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년도 중기사업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면, 일단 지금 주신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원문을 수정한, 자구 수정이라든지 내용은 우리 사무처 실무진이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이훈경 위원 : 죄송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오.

이훈경 위원 : 어제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물론 지금은 안 하는 것으로 되었다고 하지만 대관료지원사업 부분을 어차피 올려야 되는 사안이라면 30억에서 50억이라도 올려볼 수는 없을까요?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공연장대관료지원사업은 지금 민간공연장 그 부분에 49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 한도 내에서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지? 다음에 대관료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를 설득할 때 “이게 정말 수월성이 높은 사업이냐? 아니면 현장에 바우처 형태로 주는 것이냐?” 이런 부분부터 논리를 더 강화해야 하거든요. 그런 작업을 4월까지 해야 합니다.

이훈경 위원 : 예.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게 그 부분이 어디에든 숨겨져 있더라도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없으십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보고 사항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사무처장직무대행께서 위원님들께 보고안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안건은 아르크·대학로 예술극장 정기대관 공모 결과 보고와 2022년 공연장대관료지원 3차 공모 사업지원적격성 심사 및 지원대상 결과 보고입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첫 번째 안건인 아르크 예술극장 정기대관 공모는 지금 강양원 극장장님이 온라인으로 접속해 계시는데요. 강양원 극장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공연장대관료지원사업은 홍승욱 공연예술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양원 극장장님께서 아르크 예술극장 정기대관 공모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양원 예술극장장 : 안녕하세요? 지난번 환영회 때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렸던 예술극장 극장장 강양원입니다. 아르코·대학로 예술극장 정기대관 공모를 11월에 시작해서 지금 마쳤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정영순 부장이 줌으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순 극장운영부장 : 안녕하세요? 극장운영부 정영순입니다. 보고안건은 17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아르코·대학로 예술극장 2023년 정기대관 결과 보고에 앞서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위원회 보고사항으로 회의를 통해 보고 드리는 것이 맞으나, 신임 위원장님이 오시자마자 최종 위원장님의 결재를 통해서, 빠른 시일에 현장의 안내를 위해서 명절 전인 1월 18일 수요일 10시에 예술위원회 홈페이지, 예술극장 홈페이지 및 극장 대관 시스템을 통해서 이미 발표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서면 자료로 설명드리기 전에 중간 과정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극장은 대학로 공연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정병국 위원장 : 부장님, 잘 안 들린다고 하는데 말씀을 좀 천천히 해 주시겠어요. 이쪽에서 잘 안 들린다고 합니다.

정영순 극장운영부장 :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아르코·대학로 예술극장 정기대관 공모 결과보고는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말씀을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이 오시고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위원장님의 최종 결재를 통해서 현장에 보다 빨리 안내해 드리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명절 전인 1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예술위원회 홈페이지와 예술극장 홈페이지 그리고 극장 대관 시스템을 통해서 결과발표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료보다는 우선 예술극장이 대학로 공연 현장에서 현장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고 있고 예술현장이 희망하는 바텀업 스타일의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관 심사기준을 개선하며 홈페이지에 대관 개선에 대한 지침이나 사항들을 공지하여 2023년에 어떻게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안내해 드리고 의견수렴을 한 이후에 대관 접수가 진행되었고 결과발표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극장이 아시다시피 대학로 중심에 있고 연극, 무용 등 다양한 장르들이 접근하기 편하기 때문에 모든 장르가 다 희망해서 저희 나름대로 내부의 원칙은 연극, 무용, 축제와 일반 공연단체 그리고 진입장벽이 어려운 단체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17쪽의 진행결과 등은 서면으로 보시면서 표 2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 공사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아르코 리모델링이나 극장이 오래되고 노후화가 돼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작년에는 옥탑방 방수공사를 진행했고요. 올해는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에 구동부 공사가 상반기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극장별로 전년도와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전년도보다 71일 정도 늘어난 공연대관 일수를 접수하였고 접수결과는 17쪽 하단에 총 194건으로 접수가 돼서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는 했지만, 최대한 많은 공연단체와 축제를 포용할 수 있도록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18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저희가 공연을 여러 장르가 같이 하고 있지만 무용, 연극 중심이기 때문에 1차 회의는 무용과 연극의 서류로 모든 심사위원들께서 평가를 통해서 서류심사를 하고요. 올해는 특별히 인터뷰 심사 그러니까 축제 같은 경우 인터뷰 심사를 추가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축제 현장

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공연 같은 경우 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인터뷰 심사와 통합심사를 통해서 전체 연극과 무용 그다음에 축제, 일반 대관단체들이 골고루 포진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 풀을 통해서 저희가 3배수를 선정한 후에 적격자 선정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심의위원 구성 명단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종 심의결과 총 86건이 선정되었는데요. 대극장 아르코에서 꼭 하겠다는 것보다는 아르코대극장이나 대학로대극장 또는 기간도 일부 조정할 수 있다고 신청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단체들이 대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조정이라는 과정을 통합니다. 그래서 발표 전에 총 선정된 86건에 대해서 57건이 조정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전화를 돌려서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한 이후에 발표하였고 1건을 제외한 85건이 선정돼서 전년대비 18건을 추가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예비단체를 각 공연에서..... 전년도에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재원 조성이 어렵거나 다른 지역재단의 재원 조성이 안 되었을 경우, 또 일정이나 다른 해외 일정이 생겼을 때 포기하는 단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극과 무용 등 각 극장에 맞도록 예비후보 10건을 선정해서 취소가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비후보를 선정하였습니다.

19쪽으로 넘기겠습니다. 19쪽의 표를 보시면 전체 194건에 85건으로 경쟁률은 전년도 2.78대 1이었는데 올해는 2.28대 1입니다. 바로 직전 연도의 선정 결과가 있는데요. 전년에 67건을 선정했다면 올해는 85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정기대관 결과만이고 추후 창작산실이나 기획공연 등을 포함하면 2022년도는 총 83건의 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장르별로 굉장히 중요한데 연극과 무용의 비율이 비슷하게 유지되도록 매년 노력하고 있고요. 여기 기타 항목은 축제, 단체 중에서 연극과 무용을 같이 하거나 다원, 전통공연을 포함한 단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와 단독 공연도 거의 3:7의 비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운영이나 선정 과정 등을 말씀드렸고요. 자세한 대관 심의 결정내역은 각 극장별로 21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가·부가 이미 발표가 났고 표로 설명드리자면 가·부 그리고 조정이 있고 2개년이 있는데요. 해외 축제를 준비하는 단체들은 충분한 기간과 2개년의 계획이 충실하다면 2년을 보장하는 그런 조건으로 발표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지금 보고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질의나 추가해서 말씀하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태 위원 : 너무나 무지해서 그냥 무지한 질문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85건에 722일이 나왔으니까 굉장히 잘하셨는데요. 이것을 최대로 쓴다면 며칠에 몇 건을 할 수가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이것은 주로 지원사업이죠? 만약 일반한테 대여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혹시 있습니까?

정영순 극장운영부장 : 이 사업은 전부 다 대관사업이고요. 거의 올해 최대로 가동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일정이 안 맞아서 하지 못한 연말에 4일 정도와 중간에 조정이 안 되는 것을

빼고는 거의 가동률 90% 이상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대관사업이고요. 일반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예를 들어 중장기사업이라든지 다른 지원사업을 받고 오시는 경우에도 저희가 다른 일반 공공극장에 비해서 대관료가 저렴해서 간접 지원의 형태이기 때문에 대관료는 다 받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이훈경 위원 :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은 2023년도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심의대상은 어느 정도인가요? 거의 비슷한 분포인가요? 지금 거의 2건 중에 1건이 선정된다는 것인데 좀 궁금합니다.

정영순 극장운영부장 : 경쟁률이 기존에 3:1에서 요즘은 2.28:1로 조금 낮아진 경우인데요. 앞의 질문이 잘 안 들렸는데요.

강양원 예술극장장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경쟁률은 2.81대 1정도가 되었고요. 이번 경쟁률이 2.21대 1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연극공연 같은 경우에 3주 공연을 하는 공연단체들을 조금 더 협의를 통해서 3주가 아니라 2주 정도 공연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창작단체들이 스스로 지원을 해서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이 거의 유일하게 아르코·대학로 예술극장입니다. 그래서 이 공연장에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창작자, 창작단체가 공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조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좀 낮아졌습니다.

이훈경 위원 : 예, 잘 들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김진각 위원 : 아르코에서 뮤지컬 쪽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도 60억 정도 집어넣고 했는데요. 대관 결과를 보면, 사실 뮤지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중예술이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뮤지컬을 아르코에서 지원하는 게 맞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영국의 어떤 하위 범주에 있다가 독립시켜서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인정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근거는 만들어졌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뮤지컬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업적인 예술이고 수익성을 추구하는 예술인데 국가의 기금을 들여서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관 실적을 보면..... 그런데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국가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대관신청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여기에 보니까 뮤지컬은 신청이 4건이고 선정된 것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사실 대학로 뮤지컬이라는 게 소극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극장의 대관신청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 이 뮤지컬을 어떻게 되느냐는 것.

강양원 예술극장장 : 아르코·대학로 예술극장은 일단 기초예술 공연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극장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뮤지컬 같은 경우에 대관 신청을 하게 되면 대체로 4주 이상

입니다. 그러니까 뮤지컬은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제작비를 그 뮤지컬이 어떤 식으로든 관객 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때 4주는 가장 적은 셈이고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공연을 합니다. 이 경우 극장에서 뮤지컬을 만약 공연하게 된다면 거의 10개 단체의 공연을 뮤지컬 1개 단체의 공연으로 채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뮤지컬 같은 경우 소극장 뮤지컬은 그렇지만 대체로 중·대극장의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1,000석 이상의 좌석을 확보해야 1개 공연의 수지타산이 맞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뮤지컬은 보통 대형극장 이를 테면 1,000석 이상의 극장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지금 강양원 극장장님께서는 대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정책적 차원에서 말씀을 보태면, 김진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초창기에는 문화산업처럼, 영화처럼 보고 문예진흥원 시절에서는 지원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상업적 부분은 콘진에서 하면서 우리는 중소극장 규모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구별하고 있어서 창작산실에서의 뮤지컬도 많으면 2억이고요. 대본 공모를 할 때 일반적으로 오페라와 뮤지컬은 폴스코어도 필요하고 대본도 필요한데 이 부분까지 겹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세 자체는 이 부분도 산업화 쪽으로 가야 한다는 해서 조금 더 포션을 늘려오고 있는 정책적 추세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장인주 위원 : 첨언을 하자면 저희가 지원사업에서 선정된 공연이나 작품을 올리는 곳이 아르코 예술극장이 아니고요. 사실 기초예술이라고 극장장님께서 말씀하셨습시다만 주로 연극과 무용 중심으로 공연을 올리고 있는 극장이기는 합니다. 사실 음악이 빠져 있고 전통예술 분야도 어떻게 보면 빠져 있고요. 그래서 과거 유인촌 장관 때 아르코 예술극장을 무용 전용극장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결국 연극계의 반발로 무산이 되었고 지금은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과 소극장,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과 소극장 등 4개 극장을 연극분야와 무용분야가 사이좋게 나눠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중장기사업 계획서에 시설기능 강화 항목이 있었잖아요. 예술가들이 가장 좋아 하는 극장이 아르코 예술극장이거든요. 대한민국의 공연예술계를 대표할만한 상징적인 극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서 뭔가 힘을 보태고 싶어서 칼럼도 쓰고 대외적으로도 얘기를 합니다만 그 시설을 40년 넘게 활용하면서 노후화 된 부분을 보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최첨단의 장비들을 설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건물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우리가 정말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저는 1순위로 꼽고 싶은 상황입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조금 더 보태면 위원회 극장은 대관할 때 무용은 많으면 3~4일이고 연극은 길어야 2주를 줍니다. 이유 자체가 예술위원회 역할은 돈을 주거나 혹은 지금처럼 시설을 주거나 혹은 교육을 주거나 아니면 커넥팅을 시켜주는 역할들이 예술위원회의 역할인데요. 이 극장은 장인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로 연극과 무용이 이루어지기는 합니다만 저희들 역할 중에 하나가 테스트 베드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하게 하고 2차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기본 모터로 삼고는 있는데 조금 부족해서 그러고요. 위원장님께서 새로운 추세로 융복합 부분에 대해서 지시하신 부분이 “저 극장에서 아트엔테크 부분이 구현될 수 있도록 마련해 보라.”라는 지시도 하셨음을 말씀드립니다.

배은주 위원 :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아르코 예술극장에서 무용제를 하면 저도 꼭 가서 관람하거든요. 그런데 아르코 예술극장은 굉장히 오래 돼서 거기에 조명 바를 더 단다거나, 조명 바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것이잖아요. 요즘 조명은 거의 LED 조명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누수하고 영상이 아마 빔프로젝트 시스템일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 대형 LED로 해서 무대 설치를 최소화하고 영상미를 가미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간다면 아르코 예술극장은 아예 모든 기술적인 부분 또 콘솔이나 스피커 등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전용극장으로 구세군빌딩 2층을 문체부에서 임대하고 80억 정도를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맨 처음에 예산을 요청해서 기재부에서 받을 때 60~80억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건설업계 또 건축업계의 금액이 올랐어요. 그래서 계속 추가금액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상징적인 곳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공연예술계는 굉장히 미래적으로 가고 있고 융복합 공연도 해야 되는데 아마 여기에서 공연은 아날로그식 공연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대대적인 리모델링이나 예산 증액이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보고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보고사항에 대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2022년 공연장대관료지원 3차 공모 사업지원적격성 심사 및 지원대상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안녕하십니까? 공연예술부장 홍승욱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도에 공연장대관료지원사업에 대한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서 2021년도 12월 1일부터 2022년도 11월 30일까지 공연된 사업에 대한 대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각각 4개월씩 나눠서 3회 차에 걸쳐서 공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계획심의가 아니라 공연이 끝난 후에 대관료를 정상적으로 지출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내역을 서류로 증빙해서 사후에 지원하는 사업들이고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1개 단체가 연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전체 총 사업예산은 49억 8,560만 원을 3차에 걸쳐서 지원했고요. 3차 공모 때 20억 4,400만 원의 예산이 배분되었고 전체 사업예산의 41%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에 대한 지원신청 기간은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15일간 진행이 되었고요. 해당 공연기간은 2022년 8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공연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1쪽 중간의 표를 보시면 지원신청 접수결과로 948개 단체가 1,218개의 공연을 신청하였고요. 그 지원신청금액의 총 규모는 55억 5,000만 원 정도가 지원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원신청 접수결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심의위원들을 별도로 구성해서 심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출한 증빙자료들을 통해서 행정심사를 저희가 진행하고요. 그렇게 진행해서 긴급하게 지원하는 사업들이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원적격성 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결과는 33쪽 하단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총 771개 단체의 1,000개의 공연을 최종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총 지원결정액은 20억 4,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효율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원신청금액이 만약 50억인데 저희한테 배정된 예산이 24억 정도면 전체를 배정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균등하게 효율을 배분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66.8%로 전체 신청하고 결정된 금액의 66.8%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34쪽을 보시면 각각 장르별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선정건수와 금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와 지원 제외 대상사업으로 총 177개가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 지원신청서를 내지 않았거나 저희에게 증빙해야 될 각종 자료를 내지 않은 사업들이 각각 유형별로 모두 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가 접수된 이후 저희는 오후에 본 내용들을 위원회 홈페이지와 지역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홍승욱 부장님의 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미 위원 :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단체만 되는 건 아니죠?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단체와 개인 모두 가능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보고사항에 대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2023년도 2월 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사무처장직무대행께서는 입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예, 위원회 전체회의와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월 1회 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동안 전차 기수에서 위원회 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로 정했는데요. 이번에는 2월 24일이 맞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국회 일정이 있다고 하십니다. 2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서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이음아트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날 일정이 가능하신지 의견을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지금 사무처장직무대행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대로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2월 24일에 공교롭게도 국회 행사에 참여해야 해서 이번만큼은 2월 23일에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신지요? 장소로 기존에는 예술가의 집 회의장을 썼는데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이고 개·보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여건상 사용하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새로운 장

소를 물색했습니다. 그래서 아르코미술관 3층이고, 평상시에는 창작공간으로 활용하는 곳을 겸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끝날 때까지는 불편하지만 회의 장소를 다른 곳을 임차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위원장님, 박보균 문체부 장관님께서 간담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날짜는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닌데 2월 15일 혹은 2월 16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 부분은 어제 통보받기로 8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통보를 드렸는데 8일에 국무회의가 잡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변경 요청이 왔는데 그 요청한 날짜가 15일.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2월 15일 혹은 16일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바뀌는 것이라서 죄송하기는 한데요.

정병국 위원장 : 그래서 15일, 이것도 확정은 아닙니다. 2월은 국회가 열리는 달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잠정적으로 15일 오후로 생각하시고요. 가능하면 일정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추후 확정되는 대로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6. 폐 회 선 언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2월 위원회 전체회의는 2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에 대학로 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아트홀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349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종료)